

# 오피니언

## 다산포럼

임현진



‘아시아의 세기(Asian Century)’가 오... 근래 중국과 인도의 부상은 유럽과 북미에서 아시아로의 권력 이동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적으로 필요한 과제다.

문화도시의 핵심은 문화유산, 문화산업, 문화생활을 포함하는 일련의 창조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

### 광주, 아시아 문화도시로의 도약

개발을 넘어 창조적인 공간활동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도시의 시민의 활발한 창조 활동에 의해 미술, 음악, 문학, 생활이 길러지고 혁신적인 산업을 일구어낼 수 있다.

문화도시로서 광주의 미래는 이미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산업화중심의 지역발전 패러다임이 지배하던 시기에 지역 내부에서 문화산업의 가능성을 꾸준히 모색해 왔고, 1995년부터 시작된 ‘광주비엔

날래’는 다른 도시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쳐 지역 단위의 국제적 문화행사를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외국의 유명한 문화도시가 대부분 고대나 중세의 문화유적들을 기반으로 하는 역사문화 산업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광주는 한국의 근현대사적 경험을 기반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5·18을 기념하는 축제와 행사를 통해 새로운 방향을 이끌어 왔다.

세계 여러 나라들은 자기 나름의 도시의 특성을 잘 살리고 있다. 로마, 카이로,

보편적 가치로 승화할 필요가 있다. 문화도시로서 ‘국립아시아전당’을 허브로 하여 아시아 전체와 교류하면서 현대화된 문화산업과 결합할 수 있는 것이다.

광주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키우기 위해서는 비단 광주와 호남을 넘어 대한민국과 아시아를 포괄하여 세계로 나아가는 비전과 전략을 지녀야 한다.

이러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랜드마크 조성과 같은 공간간의 확충이 아니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결이 피어나는 역동적인 장소로서, 광주만의 발전이 아니라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설

### 광주·무안공항 상생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이 각기 상생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은 없는 것인가.

광주공항 국내선의 경우 2008년 운항률이 4.2% 감소했으며 2009년에는 2.3% 떨어졌다.

운항률 감소에 따라 한국공항공사 측은 노선 유지와 수요 확충 등 공항 활성화를 위해 올해 광주공항에 사용자 9천 만원을 감면해 주고, 무안공항 역시 1억 2400만원을 탕감해줬으나 효과가 없다

특정지역의 전세기 중심에서 관광 수요의 다변화와 노선의 상설화 등도 중요한 과제다.

### 경찰서 출입자 명부로 수배자 조회라니

광주지역 일부 경찰서에서 민원인들이 청사 출입시 작성하는 출입자 명부를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각종 범죄의 수배자 조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일부 경찰서의 행태는 명부 작성 자체부터 명백한 불법행위다. 경찰청의 ‘보안업무규정’에는 과학수사센터, 종합상황실 등 14곳에 대해서만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을 뿐

속철이 완공돼 광주~서울 간 운행시간이 1시간40분대로 단축되면 국내선 기능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무안공항은 2014년 이후의 변화까지 감안해야 하는 만큼 실질적 국제공항으로서 위상에 걸맞게 밀그림을 다시 그려야 할 것이다.

경찰당국은 민원인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사적으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를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 NGO 칼럼

김영환



동방에 햇살을 쬐 시민들은 세계인들이 존경하는 혁명의 도시에 살고 있음을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세계적인 혁명도시에 걸맞은 글로벌 시민답게 살고 있는가를 묻고 싶다.

외국의 예를 살펴보면, 바다의 나라 영국은 일찍이 위로부터 무혈혁명을 이룩해 세계제일의 제국국기인 스페인을

의 국가를 유지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천부인권보장)을 바탕으로 자유와 평화, 안녕과 질서 속에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우리 국가는 남북으로 갈라져 피터지게 싸우고 동서로 갈라져 권력쟁탈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들의 삶 향상과 행복의 조건이 여러 가지 있었으나 국가형태나 민족본질에 있어서 그 이유와 원인을 따진다면 ‘반민주주의’와 ‘반통일국가’에서 비롯된 듯하다.

### 시민·교육·정치혁명 절실하다

물리치고 봉건상업국가에서 민주국가로 변혁, 오늘날에도 그 권위와 명예를 자랑으로 여기며 민주가치를 수호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미국은 독립운동을 통해 영국으로부터 해방되어 ‘헬검투미국’ 즉 아메리칸 드림으로 세상을 주무르고 있고 프랑스는 시민혁명을 통해 부르봉왕조를 몰아내고 유럽 강대국으로 우뚝 섰다.

독일은 종교개혁과 비스마르크 등장으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가고 있는가 하면 가까운 나라 일본은 명치유신으로 세계 속의 나라로 자리매김하였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으나 해방공간을 극복할 만한 지도자와 영웅들이 내부의 적 때문에 희생당하다 보니 독립정신은 사라지고 분단국의 치욕을 떨치지 못하다가 좌우이념 대립으로 지금에 이르렀다.

### 주민번호 요구 사례 법률로 제한... 유출 피해 막아야

보이스피싱이나 기타 여러 분야에서 명의 도용 사건이 일어나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불안감과 경각심이 아주 높은 게 요즘이다.

고 경상도는 전라도라고 하리라. 정당으로 보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을 사대질하고 한나라당은 민주당을 비난하는 등 내 탓이 아니고 네 탓이라고 투쟁과 반목의 상제만 깊어 갈 뿐이다.

앞으로도 남북한만 닮고 동서 편가름과 정치현실만 한탄하고 있을 건가.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혁명을 이룩해서 복지문화의 나라에서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데 반해 우리 국가나 민족은 그렇지 않다면 과연 누구를 위해 혁명을 했는가.

철저히 자살하고 또 자각하여 다시 시작하자.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영웅을 가져 오고, 후손들이 조국을 존경하는 이른바 사대주의자와 외세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된 ‘부국강병’의 복지문화국가로 위하여 분연히 일어나서 시민혁명·교육혁명·정치혁명을 이루자.

〈새천년통일한국포럼 상임공동대표·정치학 박사〉

수 없이 적어 넣었다. 이렇게 곳곳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곳 투성이다. 그렇다고 이처저수 수집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의문이 든다.

▲황인희·광주시 동구 대인동

## 기고

유태명



소중했던 아름다운 추억이 되살아나는 가을입니다. ‘가을엔 누구나 철학자가 되고, 모든 사람이 시인이 된다’고 얘기했듯이 현실속에서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 그리움과 추억, 아련한 옛 생각 등이 더욱 간절함으로 되살아나는 시간이 바로 이 가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가을정서를 고스란히 담아낸 제7회 총장축제가 ‘추억과 만남’을 주제로 오늘부터 10일까지, 빛고를 광주의 심장부인 총장로와 급남로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축제출발 5년이라는 최단 기간 내에 국가 지정 문화관광축제로 발돋움’, ‘다

### 2010 총장축제, 마음껏 즐기십시오

지질시대에 아날로그적 가치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추억신드롬의 원조, ‘발상 전환을 통해 도시축제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언론과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찬사는 축제를 준비하는 저희들에게 적잖은 부담이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총장축제를 더욱 발전시키는 동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는 단순히 보고 즐기는 축제에 그치지 않고 현대축제의 중요한 요소인 오감을 만족시키는 축제가 되도록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중국인 200여명을 포함한 1만 명이 참여해 수창초교에서부터 급남로 공원까지 펼쳐지는 거리퍼레이드는 모든 프로그램을 거리와 광장에서 개최하는

총장축제의 특성을 함축해서 보여주는 아시아 최대 거리축제로서 전국 최고 수준의 거리연기와 함께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거리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7년동안 꾸준히 진화해온 추억의 전시관은 ‘이수일과 심순애’ 변사극과 같은 공연기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북학문화전시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게 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상가가 자발적으로 열거 세일을 실시하는 ‘총장로 스트리트 세일’, 학생 시골 소풍의 심장부인 총장로와 급남로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컨셉에 어울려 최고의 감동 문화상품으로 급부상한 ‘추억의 동창회’ 또한 올해 빼놓을 수 없는 총장축제의 매력입니다.

아마도 ‘이수일과 심순애’ 등 공연기능을 더욱 강화한 추억의 전시관에 서면 중간고사가 끝난 어느 날 오후, 교복을 입은 채 영화 ‘벤티’ ‘정무문’ ‘별들의 고향’ ‘진짜 진짜 잊지마’ 등을 숨죽이며 감상했던 추억이 새롭게 되살아 날 것 같습니다.

바쁜 일상속에서, 우리가 무심코 잊고 살아가지만, 아련한 꿈은 시절의 향수는 누구에게나 영원히 그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역의 역사, 전통, 일상생활을 그대로 담아낸 ‘총장축제’에서 옛 친구를 만나 30~40년 세월을 훌쩍 거슬러 올라가, 그때 그 시절 아름다운 추억을 화제 삼아, 정이 듬뿍 담긴 따뜻한 차 한 잔 기울이는 것은 어떨까요? 각 박하고 숨가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마음을 나눌 벗과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느껴보는 마음의 여유. 바로 그게 이 가을, 추억이 주는 따뜻한 선물이라 믿고 생각합니다.

〈광주 동구정장〉

## 無等鼓

인간은 왜 높은 곳에 오르려하는 것일까? 건축학자인 이화여대 임석재 교수는 자신의 저서 ‘계단, 문명을 오르다’에서 인간은 계단을 올라 하늘에 닿고픈 수직욕망을 추구해왔다고 주장했다.

그 계단을 통한 인간 상승욕구의 대표적인 건축물로 바벨탑과 피라미드를 꼽았다. 임 교수는 엘리베이터의 등장으로 계단은 쇠락의 결정타를 맞았다

고 설명했다. 그러나 훨씬 힘이 덜 들고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는 건축물의 고공행진을 부추겼다.

최근 600m 높이의 세계 최고 송출탑인 중국 ‘광저우타워’(廣州塔)가 완공됐다. 광저우타워는 캐나다 토론토의 CN타워(553m)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송출탑으로 올라섰다.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은 대만의 101빌딩. 높이 508m로 세계 최고의 빌딩이며 말레이시아 쌍둥이빌딩(451m)

이 그 뒤를 잇는다. 미국 시카고의 시에스 타워, 상하이 88빌딩, 홍콩 금융센터 등은 1930년 완공돼 한 때 세계 최고 건물로 기억되던 엘리베이터 스테이트 빌딩(381m)을 제쳤다.

건물이 높다고 해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재난영화의 대표작 ‘타워링’은 고층건물의 ‘공포’를 상징한다.

영화에서 비극은 세계 최고층 빌딩의 오픈 파티가 있던 날 일어난다. 건물을 설계한 로버트(폴 뉴먼)는 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전기배선을 사용해 과전압으로 인해 합선이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했지만 이미 불이 시작돼 큰 재앙을 겪는다는 내용으로 구성된 영화는 흥행에 성공했다.

최근 부산의 38층짜리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큰 불은 ‘한국판 타워링’이라고 불릴 만큼 충격을 주었다. 초고층 오피스텔의 생활이 부러움의 대상일 수도 있었지만 누르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경종인 셈이다.

■박지경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 타워링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元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錫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내선))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재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조선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16	조선부 2200-57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전산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